방학 앞두고 포천순례도보여행 나서

이곡초등학교 허태강 교사와 학생 10여명

이곡초등학교 허태강 6학년 담임교사는 7월24일 1박2일 일정으로 학생 9명을 인솔해 학교에서 강원도 철원군 도경계선까지 50km를 걷는 포천순례도보여행을 실시했다.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소재 이곡초등학교 허태강 6학년 담임교사는 7월24일 1박2일 일정으로 학생 9명을 인솔해 학교에서 강원도 철원군 도경계선까지 50km를 걷는 포천순례도보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여행은 이곡초등학교~축석고개~송우리~포천동~만세교를 거쳐 금주초등학교에 도착해 1박을 하고 다음날 출발해 철원군 강포리 도계까지 50km 거리를 걸었다.

포천을 알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도전과 인내심은 물론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목적지까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다녀왔다.

여행에 참가한 윤재식(12) 학생은 "첫날은 그런데로 걸을만 했는데 마지막날은 힘들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니 다시 힘도 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허태강 교사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아 내년에도 실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매년 도보순례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들도 포천을 일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단편소설

할머니의 말씀

이해영
송우고1학년

내 이름은 한지운 입니다. 현재 나이는 34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인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00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한지운이다.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오늘도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학교 정문을 통해 한 아주머니께서 들어 오셨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함께 하던 친구 한 명이 그 아주머니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우린 축구를 잠시 중단하고 그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를 드렸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내 친구에게 가방을 가져 오라 하셨고 그렇게 내 친구는 자신의 엄마와 함께 학교를 빠져나갔다. 정말로 부러웠다. 난 태어나서 단 한번도 저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는데...라는 생각에 너무 속이 상하여 나도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걸어가는 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그 아주머니와 내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버렸다. 정말 속이 상했다. 왜 난 부모님 없이 살아야 하고 , 할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정말 원망 하고 또 원망하며 집으로 갔다. 그 날도 할머니는 웃으며 나를 맞아 주었다. 하지만 난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할머니를 향해 소리 치듯이 말하였다.

"왜 난 엄마가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은 엄마랑 손도 잡고 학교 오고 운동회 날마다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서 먹으며 노는데 왜! 왜 나만 없는데!"

한참 동안 그렇게 고함을 치듯이 화를 내며 울었다. 정말 억울하였다. 난 분명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며 지냈다. 그런데 왜 나만 사소한 행복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속이 상해서 할머니 또한 원망스러웠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지운이가 속이 상하는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 할미에게 말해보렴 " 이라고 하셨다. 나는 울음을 겨우 그치고 할머니를 쳐다보며 그 친구의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얘기 해주셨다.

"지운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난 이해 할 수 없어서 "내가 뭐가 착해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 없다고 속상해 할 줄 아는 아이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란다. 잘 들어보렴. 여러 애들은 부모님이 다 있고, 지운이 말대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소풍도 같이 가고 운동회도 같이 하면서 지내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엄마아빠 말만 들으면서 사는 거 보았니? 잘 둘러보렴 . 부모님이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투정 부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말이다. 부모님은 꼭 있어야 하는 거고, 또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줄 알면서 철없이 구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난 부모님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씩씩하게 지내는데 자기들은 나처럼 엄마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계시고 함께 웃을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짜증 부리고 심술 부리는 애들 보면 한대씩 때려 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렴. 지운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배웠지? 그리고 투정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도 배웠고, 그러니까 지운이는 착한 아이인 거란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크면 클 수록 심술만 부리고 짜증만 부리고 원하는 게 점점 커지니까. 부모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는 지운이 뿐이 없을거란다. 지운이에게 한 가지 알려 주고 싶은 게 있단다."

"뭔데요?"난 궁금해서 바로 물어 보았다. "지운아.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 , 먹을 것을 못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게야. 지운이는 엄마아빠가 안계시지 않니? 그러면서도 가끔은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그리고 또 지운이가 울면서 한 말 기억 나니? 우리 지운이는 부모님이 있는 자체가 제일 행복하다고 했지? 그래 바로 그런거란다. 행복은 부모님이라는 작으면서도 큰 것에서 오는 거란다. 너를 낳아 준 부모님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행복해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의 큰 자리를 모르고 부모님이 계시는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지. 하지만 지운이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지 않니? 바로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다. 큰 것에 감사하며 돈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니지. 지운이처럼 정말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게다. 할미 말 이해되니? 지운이가 아직은 어려서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운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이 할미 말을 이해 할 수 있을 게다. 지운이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야."

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께서 하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조차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알아듣는 척 했다.

왜냐면 , 할머니는 항상 옳은 말씀으로 날 키워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른 셋 이라는 나이가 되고 정말 부모가 되면서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니 알 것 같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또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이다. 내가 지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함이란 나를 닮은 아이가 스스로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 아침 인사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라나는 정말 사소한 삶에서 느끼는 행복함이라는 것이다.

큰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 필요는 없었다. 그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진실된 사랑을 하며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부터 사소함을 느끼고 밥을 먹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서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명품학교 만들기 ③ | 포천초등학교

포천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명품학교 만들기

부모님 자서전쓰기 효행의 본질 추구 명품 브랜드화

임종수 교장

심상학 교감

장철석 교감

1911년 개교후 선비의 고장 포천 교육의 중심으로 1세기를 성장해온 포천초등학교는 1만8천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45학급 1천7백여명의 학생과 62명의 교원이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을 교육 지표로, 힘과 슬기를 모아 '꿈을 키우는 학교 ·희망을 주는 학교·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란 자화상을 실현하고자 정진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부모님 자서전 쓰기를 통해 인격 형성의 근본인 효행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독서를 통한 인격 형성을 전면에 내세워 명품 브랜드 ▶나를 사랑하기에 읽고 깨닫고 자서전 쓰는 학교▶특색 사업▶교원능력 개발평가 선도학교▶체육 부문의 표상인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 자서전 쓰기로 효행의 본질 추구와 명품 브랜드화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충실하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독서를 통한 인격 형성의 원동력과 삶의 바탕을 마련하여 문화의 중심을 만들고 더 나아가 백행의 근본인 효를 부모님 자서전 쓰기로 실천하여 공경과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아늑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공부방인 학교도서관을 찾아 효행에 관한 독서를 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정의 달 5월(아버지 자서전 쓰기)과 문화의 달 10월(어머니 자서전 쓰기)에 대회를 실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독서운동 활성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는 학부모 보람교사 구성, 독서인증제 시행, 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신문 발간, 책의 날 행사(책갈피 나누어주기, 책 속의 보물찾기 대회), '동화 읽어주는 어른들의 모임' 결성, 독서 퀴즈대회, 독서문화 축제(독서한마당), 독서일기 쓰기 대회, 부모와 함께 독후감 쓰기 대회, 도서바자회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 중심 경영의 특색 사업으로 '우리 학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주인 의식을 갖고 원만히 적응하여 학급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을 '우리 학급의 날'로 정하여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급의 날'에는 그 학급에서 자랑하고 싶은 합주, 합창, 웅변, 연극, 독서발표, 학년별 으뜸이 등 개인별 단체별 특기를 사전에 촬영하여 방영함으로써 학급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화를 주는 목요 인성조회 윤번제 훈화 지도를 하고 있다. 장려되는 덕목 사례와 의미와 의의에 따라 신봉해야 할 가치관과 추구해야 할 행동양식을 언어적으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 획일적인 국민의례와 학교장 말씀 위주로 운영되어온 애국조회를 월 1회로 줄이고, 많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특기를 윤번제 훈화로 꾸며 감화를 위한 목요 방송 조회로 운영되고 있다.

소질을 계발하는 다양한 인증제 시행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 북돋우고 인증제 취득에 의한 성취감으로 소질 계발을 촉진하도록 영어, 독서, 체육, 한자 인증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접차 방과후 특기적성부서 전체로 인증제를 확대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수요자의 요구와 특기 신장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과후 특기적성부 즉 관악부, 축구부, 배드민턴부, 영어회화부, 논술부, 로봇제작부, 풍선아트부, 한자교실부, 축구부, 무용부, 컴퓨터부를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별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RCY,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6개 단체 전체를 운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단체별 특색 있는 활동으로 심신 수련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해 과학작품 및 발명품 경진대회, 자기주도적 학습 발표 대회, 초등독서 논술대회, 창의적 학습결과물 발표대회, 포천의 얼 계승대회를 학년별 특색에 맞게 요일을 정하여 1인 1과제 추진 운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포천시대회 대다수 부문에서의 상위 입상과 경기도발명품 경진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의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인 포천초등학교는 '나, 너, 우리와 함께 신바람 교육'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운영의 이해를 위한 연수와 우리 학교 특색에 맞는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한 학년별 수업 동아리 활동이 전개되어 수업 전략 세우기, 자료 제작 및 개발, 평가 자료 개발 및 수업 공개에서의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육부문의 표상 경기도 대표 선수 배드민턴부 육성으로 방과후 특기적성부 중 관악부, 현악부는 제1회 포천시 예능발표대회부터 금상과 대상을 번갈아 차지하여 포천시의 관악과 현악의 독보적 존재로 인정되어 해마다 자체 연주회를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배드민턴부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단체전과 개인전 1위, 전국배드민턴연맹선수권대회 3위, 원천배선수권대회 준우승,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기 1위,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 여자대표 선수단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포천초등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초등학교 학부모 교람교사 총회 후 기념촬영.

함께 공부해요

通論(통론) ㉚

天子有爭臣七人 이면 雖無道 나 不失其天下 하고 諸侯有爭臣五人 이면 雖無道 나 不失其國 하고 大夫有爭臣三人 이면 雖無道 나 不室其家 하고 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 하고 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니라 故 로 當不義則子不可以弗爭於父 며 臣不可以弗爭於君 이니라.

"천자유쟁신칠인. 수무도 부실기천하. 제후유쟁신오인. 수무도. 부실기국. 대부유쟁신삼인. 수무도. 부실기가. 사유쟁우즉신부리어령명. 부유쟁자즉신부함어부의. 고. 당불의즉자불가이불쟁어부. 신불가이불어군."

[雖 비록수 離때어놀리 弗 아닐불 (爭臣)쟁은 諫(간)하는 것. 간하는 신하. (爭友)잘못을 충고해주는 벗.(令名)좋은 명성]

천자에게 간쟁(諫爭)하는 신하 일곱 사람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 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으며 제후(諸侯)에게 간쟁하는 신하 다섯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 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으며 대부(大夫)에게 간쟁하는 가신 세 사람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 하더라도 그 집을 잃지 않는다.

선비에게 바른말로 충고해 주는 벗이 있으면 명예가 그 몸에서 떠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의롭지 않은 일을 당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諫)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諫)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그 잘못을 도리어 합리화시켜서 아부하며 내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이 의리를 망각한 이기적인 그릇된 사고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의:011-354-6485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장

윤종성의
국제비지니스 미국영어

방문/출장

16.〈회사 방문 〉: 견적서 (1)

* 〈 참고서〉: 견적서가 통보될 때,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 들이 포함된다. 의사결정 요소 들 이다.

1. 품목명칭 및 간단한 제품개요 : 아이렘스 앤 프라닥스 데스크립션
〈Items and product description.〉
2. 품목별 단위, 단가, 수량, 금액(화폐명 표시)
아이렘, 유닛, 유닛프라이스, 퀀티티, 어마운트
3. 가격조건 : 프라이스 컨디션스(실예)
〈Price Conditions.〉
1) 선적가격 및 출항 항구명 :
엡후 오 비 상해
〈F.O.B. Shanghai Port.〉
* Free On Board(물품+운송+서적)
2) 부산 도착가격 (1) : 씨 앤 엡후 부산
〈C & F. Busan Port.〉
* Cost & Freight(물품+선적+해운)
3) 부산 도착가격 (2) : 씨 아이 엡후 부산
〈C. I. F. Busan Port.〉
* Cost, Insurance, Freight(물품+선적+보험+해운)
4. 대금지불 후 선적시 까지 소요일수 : 델리버뤼 타임
〈Delivery Time.〉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이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 창단식

포천시 최초 중등 여자 바이애슬론부 좋은 성적 기대

이동중학교(교장 김춘성)가 바이애슬론부를 창단하고 7월16일 포천교육청 최길용 교육장,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회장, 경기도 바이애슬론 회장,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동중학교 운영위원장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이동면 소재 이동중학교(교장 김춘성)가 바이애슬론부를 창단하고 7월16일 포천교육청 최길용 교육장,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회장, 경기도 바이애슬론 회장,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동중학교 운영위원장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는 학생들에게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대회에 출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목적으로 창단됐다.

이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는 1학년 정유림, 2학년 김유리, 김선영, 길가현, 장지연, 3학년 성은주 학생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돼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동중학교 김춘성 교장을 단장으로 이창학 감독, 김태영 코치의 지도아래 창단한 바이애슬론부는 포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창단한 중등 여자부 바이애슬론부로써 내년 1월, 2월 용평에서 개최되는 협회장기 및 소년체전 선발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